



**전주시, 2022년 상반기 직원 친절교육 실시**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22일 시청 강당에서 변화의 시대, 친절을 디자인하라를 주제로 한 2022년 상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집합교육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전주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해 가운데 시민 만족을 위한 민원응대 기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청아 한국능률협회(KMA) 전문강사로부터 △특이민원인과의 대화 기법 △직원 스트레스 및 감정 관리방법 등을 알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배우고 익혔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박승희 주무관은 "교육을 통해 다양한 민원처리 요령을 숙지하게 돼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무원의 민원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서비스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부안 주산면, 주산사랑 작은예술제 개최 준비**

부안군 주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채수택)에서는 주산사랑 3대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5일 '주산사랑 작은예술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행사는 주산면 고산제 저수지를 배경으로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 특히 주산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노래교실, 난타, 풍물반은 작은예술제를 빛내기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점검하며 연습에 매진하는 중이다. 섹스폰, 기타 등 지역 예술가의 재능기부 연주회와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이 어우러져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고산제 앞을 '주산 자연마당'으로 친해 꽃 물, 들란이 어우러진 행사장을 만들고 있다. 공연을 돋보이게 해 줄 무대 또한 특별하다. 물과 흙으로 쌓아올린 자연 친화적 무대와 병풍처럼 둘러싸인 고산제의 풍광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기획하여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춘수 주산면장은 "이번 예술제는 진정한 주민 주도 주민자치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민 역량 강화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주산면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제시체육회, 엘리트선수 육성 훈련비 전달식**

김제시체육회(회장 백재운)가 엘리트체육의 근간인 관내 초·중·고 엘리트선수들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22일 훈련비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서는 초·중·고 엘리트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백재운 김제시체육회장은 "훈련비 전달을 통한 선수들의 성장은 선수를 본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김제시의 체육발전에도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며 "선수가 중심이 되고 나아가 그 선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체육회는 매년 학교체육의 발전과 우수 선수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전라북도체육회와 연계하여 초·중·고 13개교 6종목, 약 130여명의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박용업 시민경찰연합회장 취임**

전주완산경찰서, 이·취임식 가져

전주완산 시민경찰연합회는 지난 15일 백송화관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용업 제6대 회장의 취임식과 정유숙 제5대 회장의 이임식을 가졌다. 전주 완산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는 순수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기수제로 운영되며, 지구대와 결연을 맺고 야간 순찰 및 특별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완산구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주변 교통정리, 행사장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지역 내 봉사 시설에서 배식봉사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제6대 회장에 취임한 박용업 회장은 시민경찰 7기 출신으로 지구촌 플라워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용업 신임회장은 "무거운 책임감 속에 그동안의 시



민경찰 활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치안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개소**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에서 전담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에서 운영하는 전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가 개소했다. 전국 8번째로 문을 여는 전주보훈요양원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921번지 일원 부지(14,033㎡)에 연면적 9,764㎡(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복권기금 35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으며, 주간보호센터는 1층(연면적 336㎡)에 설치됐다. 전주보훈요양원은 올해 4월 개원해 운영 중이며, 부설로 운영되는 주간보호센터가 지난 20일 개소했다. 주간보호센터는 △25인 정원 △다양한 실외 산책 공간 △아이티라스 및 원예활동 공간 △비탈리더, 워킹레일 등 전문재활장비를 통한 재활 프로그램 △전문급식업체를 통한 수준 높은 급식 제공 △개별 맞춤형 신체·인지기능 프



그램 등을 갖추고 있다. 박진기 전주보훈요양원장은 "인근 지역에 낮 동안 케어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 예손사랑나눔 무료급식 봉사**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회장 전상문)는 지난 20일 지역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해온 예손사랑나눔(이사장 송병희)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이날 무료급식을 위해 바이전주우수업체 중 우수상품으로 인증 받은 식재료(닭고기, 감치, 한우수제민두 등)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고, 급식소를 찾은 100여 명의 노인들에게 배식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봉사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도 김치와 한우만두, 찹쌀 등 우수상품을 기부하는 등 약 5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예손사랑나눔에 전달했다.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는 이번 봉사를 시작으로 매월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상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상품을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바이전주우수상품으로 인증 받은 32개 업체들로 구성된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는 정보교환과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바이전주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오고 있다. /김윤상기자



전상문 회장은 "무료 급식 봉사뿐 아니라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으로 매년 일정 기금을 조성해 전주시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다양한 공익사업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웃고 정을 나누며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상기자



**삼천2동 두부사랑 최승해 대표, 240만원 기탁**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 '두부사랑' 최승해 대표는 22일 동 주민센터(동장 이희숙)를 방문해 현금 24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최승해 대표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6가구에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삼천2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역임하고, 삼천2동에서 20여 년간 두부사랑을 운영해 온 최승해 대표는 올해 초에도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는 데 이어 두 번째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7년째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4월에 제8회 초야의 봉사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최승해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삼천2동의 청소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돕고 싶은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김제 바르게살기운동 새범위, 새만금방조제 환경정화**

바르게살기운동 김제시협의회(회장 이권재) 및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권재)는 지난 22일 새만금 제2호 방조제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 하였다. 이날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새만금 2호 방조제 33센터 인근을 중심으로 청결한 새만금방조제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 쓰레기를 정화하며 새만금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친환경적인 새만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만금에 대한 주인의식을 보여주었다. 이권재 회장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새만금 습터와 방조제 주변의 쓰레기를 정화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해양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방지 쓰레기들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 2/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21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2022년 2/4분기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매 분기 개최되고 있으며 민·관·군·경이 함께 참여해 비상사태 발생 시 지역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기관별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하는 회의이다. 이번에 열린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2/4분기 회의는 전북도청과 35사단 주관으로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진안경찰서, 진안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유관 기관들이 참가해 유사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오는 7월 25일~7월 29일까지 실시되는 전북권역 화랑훈련 대비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화랑훈련 통제 및 평가계획, WMD 사후관리, 화랑훈련 준비계획 및 협조 사항, 전라북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방안, 태세발령 및 관할지역에 따른 경찰 작전수행방안 등에 대해 일했다. /진안=우태만기자



**고창 흥덕 주민자치위, 고구마 심기 봉사활동**

고창군 흥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0여명이 '흥덕면 행복장교' 채움을 위한 고구마 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복장교 사업은 흥덕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흥덕면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병창고에 쌀, 참깨, 양파, 감자, 고구마 등을 채워놓으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이 병창고에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박기용 주민자치위원장은 "행복장교에 많은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식재료가 기부돼 어려운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대 건축학과, 스타센터서 졸업작품 전시회**

전주대학교는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 간 스타센터 3층 아트갤러리에서 제28회 건축학과 졸업작품 전시회 'EARTH'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5년제 건축학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재학생들이 각자가 개인적으로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도시 및 건축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해 도출된 결과물을 전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의 주제인 'EARTH'는 전 인류가 지구에 발을 뒹고 태어나고, 지내고, 사랑하고, 죽는 땅이며, 우리 모두를 전부 담고 있다라는 의미로, 재학생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대지에 자신들이 쌓아온 문제의식과 해결 능력을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설계와 표현의 과정을 결과물에 담았다. 김준영 교수는 "학생들이 예비건축가로서 건축이 담을 공공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유념해 자신의 건축학과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만한 작업을 진행했다"며, "지난 겨울 방학부터 숨 가쁘게 달려온 학생들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관람하는 대학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주대 건축학과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전주 구도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개최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주천면 바르게살기협, EM비누&삼푸만들기 행사**

진안군 주천면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이종섭)는 지난 21일 '환경을 내몸처럼 무궁해 비누&삼푸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바르게살기협의회회원 15명은 환경보호 방법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 가루비누와 EM액액을 활용한 비누&삼푸만들기 실습을 진행했다. 이들은 화학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천연비누와 삼푸를 만들어 보며 환경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한 소통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바르게살기 진안군 사무국장 최혜경 씨 "이러한 체험 활동을 늘려가며 주민들이 친환경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활동영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종섭 주천면 회장은 "이번 친환경 비누&삼푸 만들기 체험교실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